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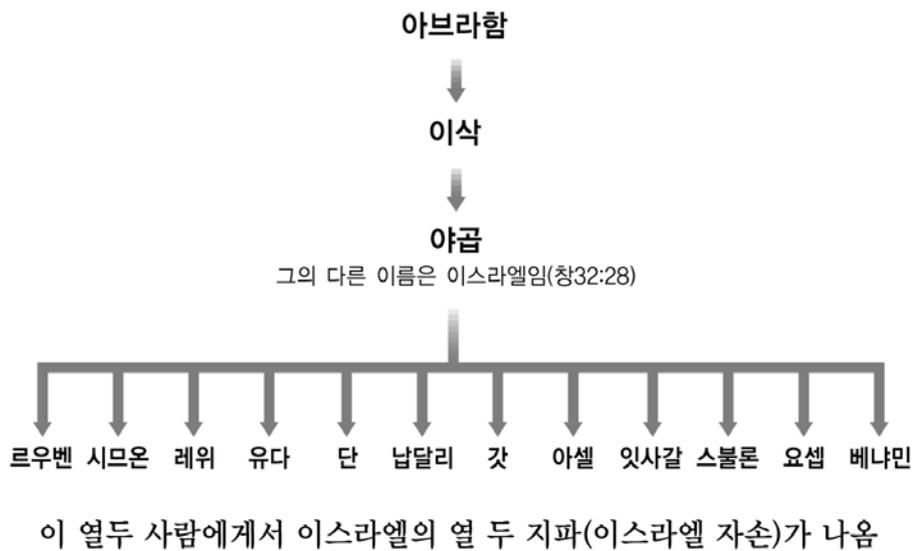
제 6 장

약속 경륜

바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그 나라들 가운데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특별히 5절, 20절, 31-32절).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창12:1-3; 17:5).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이들을 매우 특별히 다루셨습니다.

- 한 사람 ----- 아브라함
- 한 가족 ----- 아브라함의 가족
- 한 민족 -----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민족(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장소에서 즉 그의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떼어 내어 새로운 장소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집을 떠나, 당신의 나라와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모두 떠나 전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낯선 장소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창 11:27 참조). 우리는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수 24:2 후반부 참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거짓 종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길 원하십니다(살전 1:9).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땅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어진 약속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갈 3:16과 비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는 “무언가를 하리라.”와 “무언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위해 행할 일들을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너로부터(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창 12:2): 이 민족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다.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창 12:2):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미칠 것을 말씀하셨다.
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창 12: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적을 저주하시리라는 의미이다.
4. 네 안에서(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창 12:3):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어느 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마 1:1)가 나올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요일 4:14).

이 두 구절(창 12:2-3)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1. 민족(2절)
2. 복(2절)
3. 보호(3절)
4. 구원(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창 12:4; 히 1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창세기 13장 14-17절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그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이 약속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강 즉 나일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 지도에서 이 두 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창세기 17장 5-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자손)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창17:8).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창26:1-5).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창28:10-15).

이 세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딤후1:2; 히6:18), 사람이 아니므로(민23:19),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므로(롬4:21), 신실하시므로(히11:11)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2. 사람의 책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에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부동켜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히11:1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다. 그걸로 끝이다!”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별이 빛나는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아브라함이 별을 다 셀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가까이 보면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창15:6).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창22:17의 약속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에 내려갔을 때 그 수는 모두 70명에 불과했습니다(출1:5). 이는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창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12절, 20절; 5장 5절과 사도행전 7장 17절을 읽고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롬4:20-21)

또한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 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복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곤경에 빠졌습니다. 가령 그들은 이집트나 바빌론에서 노예 상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3. 사람의 실패

A.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창15:6).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에 있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 사래를 통해 아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사래의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물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롬4:20-21).

B. 이삭의 실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동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창25:21-23). 그러나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창25:28). 이삭이 축복하기로 한 아들은 에서였지만(창27:1-4)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속아 부지중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응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창 27:33).

하나님은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도 결국 이에 동의하여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고 동의합니다(히11:20).

C. 야곱의 실패

거듭 거듭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창28:13-15; 32:24-29; 35:9-12).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거늘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이제 막내인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고 아들 시므온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야곱은 절망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창42:36)라고 외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야곱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고 결국 야곱은 요셉을 포함하여 자기의 열두 아들 모두가 살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이 야곱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복과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한 것입니다(롬8:28). 사실 고난 중에 그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후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D.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

이 장의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열 명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요셉이 결국 이집트에 노예로 팔린 것으로 일이 끝납니다(창37:28). 그리고 그들은 야곱을 속여 자기들이 한 일을 은폐하였습니다(창 37:31-34). 이 모든 일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더 축복하므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열 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요셉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창37:3) 우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모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를 기다리자고!” 그러나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E.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 1) 이집트 탈출 뒤 파라오가 추격하자 곧바로 이집트로 가겠다고 불평함(출14:10-14)
- 2)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즉시 불평함(출15:23-26)
- 3) 먹을 빵이 없다고 불평함(출16:1-8)
- 4) 호렵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함(출17:1-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이집트로 팔 때만 해도 후에 자기들의 자손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악몽을 꾸니다(12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자손)가 남의 땅(이집트)에서 그 땅 사람들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세대 즉 40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창15:13, 16). 그 뒤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구해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15:14).

창세기 46장 3-4절, 27절에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주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열두 아들 모두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그 땅의 노예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국고 저장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재료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는 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출2:23-25; 행7:34). 하나님만이 이 끔찍한 속박의 삶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8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리라. 나는 주라, 하라.

여기서도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박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을,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긴 적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고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민23:7-18). 그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5.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과 그 약속들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히4:2).

여기 씨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가지를 내며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씨를 식탁에 둔다든지 다른 단단한 표면에 놓게 되면 그것에게서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 깊이 심겨야 하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네 외투 주머니에다 20달러를 넣어 돌 테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쓰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마을에 내려가도 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없다고 생각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쥐고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봐도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거머쥔 다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영생의 약속(요일2:25; 요5:24)
2. 구원의 약속(행16:30-31; 롬10:9, 13)
3.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행10:43; 행3:19)
4.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과 안전의 약속(요10:28-30; 롬8:1, 38-39)
5.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벧전5:7)
6.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의 약속(히13:5; 마28:20)
7.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리라는 약속(빌4:19; 시23:1)
8. 강건함의 약속(빌4:13; 고후12:9-10; 사41:10)
9. 도움의 약속(히13:6; 사41:10, 13)
10. 용서와 죄 씻음의 약속(요일1:9)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외에 생각나는 또 다른 약속은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는 어떤 약속들이 나올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울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열 가지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히11:6).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리라고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은 참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요1:12). 믿음은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